

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오 승 통
편집인 : 박 상 호

2. 교회 탐방
(시우동장로교회)

4. 21세기 태평양시대
기독교 중심국가

6. 100인 인물탐구
(춘천선교대회를위한친박회)

9. 문화읽기
(영화에도 상상력이 있네)

나 침 반
교회개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4년 9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 70 호

2004 성시화 춘천선교대회

성시화를 위한 문화축제가 열린다

춘천은 1972년 이래로 성시화의 고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한 마음, 한뜻되어 기도의 씨앗을 뿌려 왔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도 응답하셨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춘천에서 일으키셨다. 더불어 춘천의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선교자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국 각지의 도시와 세계로 성시화 운동을 퍼뜨리게 하셨다. 그리고 민족복음화의 기쁨이 되어 한국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셨다. 이 사역에 수많은 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곳곳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부흥의 기쁨이 마련되며 지금의 영적상황으로 하나님은 춘천을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 강력한 선교의 대표주자로서, 춘천을 선택하시고, 춘천에서 복음의 일꾼을 부르시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이 도시 복음화와 또 세계복음화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회를 만들고자 한다. 사도행전1: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에루살렘선교와 같은 지역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땅끝 선교와 같은 해외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대회를 통해 춘천을 선교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실제적으로 꾀하고자 한다. 그리고 춘천 지역이 2010년 전체 인구의 50%이상의 복음화와 저변에 걸친 성시화를 이루기 위하여 문화축제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춘천 지역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예술과 종교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재조명 되어지고,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해 본다.

따라서 선교대회가 해외선교만이 아닌, 균형을 이룬 내·외적인 선교대회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문화연구팀, 중보기도팀, 어머니/아버지 학교, 가정전도팀 등)를 구성하여 대회가 끝난 후에 도이 사역이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9월달부터 춘천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에 춘천의 목회자와 평신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 적극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춘천이 "깨끗한 춘천! 거룩한 춘천!"이 되기를 바라며... (글. 편집부)



2004 성시화 춘천선교대회 D-33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춘천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린다.

9월 3일	순복음춘천교회	9월 24일	중앙감리교회
10일	중앙성결교회	10월 1일	소양성결교회
17일	동부감리교회	8일	순복음춘천교회

시간	3일(일)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9일(토)
9:00							종합행사
10:00							① 바자회 오전 10시부터
11:00							② 천신축구대회 오전 9시부터
12:00							③ 전도대회 오전 10시부터
1:00							각 영역에서 공동운동장으로
2:00							④ 청소년 신앙축제 오후 5시부터
3:00							장소 : 중앙성결교회 공동행사장소 : 공설운동장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리더쉽 세미나
강사 : 피영민 목사
동부장로교회
복회자 / 장로

성시화 포럼
박인관 목사
동부장로교회
복회자

춘천기독인 미술대전
동부장로교회

2004 성시화 춘천선교대회
선교 부흥회
강사 : 피영민 목사 / 장소 : 동부장로교회

복음성가제
지장선교회
석사감리교회

전략적기도회
순복음 춘천교회

제18회춘천연합찬양축제
주관 : 월드비전
장소 : 문화예술관

CBS 춘천방송
www.chcbs.co.kr 93.7 MHz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 찬사령(1만원) · 배사령(2만원) · 놀사령(3만원)
월드비전 후원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통 515-01-038052
수세금 200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보낼곳 : (우)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 256, 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준전지역 교회탐방 — 사우동장로교회

이번호에는 첫번째 교회탐방으로 사우동장로교회(담임 목사 문정섭, 현 장로교연합회 회장)입니다.

무교회 지역에 개척된 교회

Q: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준전에서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처음 신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농촌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어디서 사역을 할까 생각하다가 군대시절 알게 된 이곳 사우동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준전 시내권이지만 시외곽으로 전형적인 농촌마을 분위기 나 있는 지역이었고, 교회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Q: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1985년 5월26일(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배 전도사 두 사람과 자진 출석한 성도 한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노회주관으로 설립예배(1985.5.27)가 있었습니다. 86년에 들어 유세 4명, 세례 4명, 학습 8명이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예배당 대지를 100평을 구입했고 조립식 예배당을 지었으며, 추가로 대지 100여평을 더 구입하여 95년도 6월6일에 창립 10주년을 맞아 집사 두분과 권사 네 분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경우, 자라면 대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오는 허탈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꾸준히 자란 이들이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Q: 개척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 말씀에 주십시오.

초기 교인들은 다 새신자들이었습니다. 전체 교인의 95%정도가 제가 개척하고 나서 출석한 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 찬송가를 가르쳐야만 했던 일들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농촌과 오지선교를 추구하는 교회

Q: 사우동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저는 오지에서 선교하고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자격도 없는 자가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오지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지선교를 돕는 것이 사우동장로교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1구좌 5만원 이상을 선교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5가족당 1가족은 매 주말마다 오지선교를 하는 교회로 파송하여 그곳에서 주일을 지키며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일-전도, 유년주일학교사역-을 계획,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7지역, 오지선교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Q: 준전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성시화란 개교회가 지역을 살피는 책임을 다하고 전도와 문화개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주일성수를 많이 강조합니다. 주일성수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신앙적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기독교 문화가 되는 것이지요. 성시화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직업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화요일 새벽기도회시, 준전성시화를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우리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성시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성시화운동에도 열심

Q: 준전기독교연합회와 성시혁신통본부에게 말할 말씀은?

준전지역의 교회연합과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지 못하는 것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내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바라는 점은 기독교연합회가 일을 추진할때, 민감한 사안에게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협의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종교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을 늘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을 통하여 불필요한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어야 복음화의 걸림돌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성시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이러한 결과들이 모여서 결국 성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우동장로는 1년행사로 빠지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있는데, 가족초청잔치(5월 마지막 주일)와 사랑의 초청잔치(11월 두 번째 주일)라고 한다. 이때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 이웃 등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눈다. 문정섭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시화란 개교회가 지역을 살피는 책임을 다하고 전도와 문화개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 힘주어 강조하셨다.

가족으로는 사모님과 장녀, 성희(스포츠 서 울기자), 차녀, 현숙(한림대 3년)이 있다.

[글 편집부]

문정섭 목사

1946년생

1986년 1월 개혁신학원 졸업 (79기)

현재, 사우동장로교회 담임

개척 후 약20년

준전지역 장로교연합회 회장

사우동장로교회 (준전농고앞)

200- 140 준전시 사우동 431-6

☎ 253- 7027 / 011-9057-7027



대한예수교 총회 은혜교회
오직 성령으로 보증인여 되라!

한영훈 양육!
한영훈 구원!
불편하게 사시다.
바른 믿음
바른 관계

지용찬 목사

기독교 한국침례회 예광교회
예수사랑, 교회사랑, 준전사랑

준전성시화만 세계선교를바라며
믿음과 사랑으로 만나며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는 은매의 공동체

조영춘 목사

영혼의 양식

“하나되어 세계로” - 백두대간 햇불 기도회



감독 / 권오서 목사

얼마 전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봉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평양신학원에서 특강을 하고난 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이에, “통일만 되면 저들 모두에게도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이제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니, 세계 많은 민족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데도, 역사 의식의 부재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도는 분명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통합의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정체성을 도외시한 채 통합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잃은 통합은 무의미합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열두 지파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켰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에 빠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민족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법계를 찾아오는 일을 가장 우선시 했습니다. 다윗은 통일국가를 이룩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도 공동대응하며, 공동의 번영을 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맞먹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사실 백두대간 햇불 기도회는 역시 민족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시작했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 북강원도에 1000여대의 자전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강원도를 돕기 위한 운동을 뛰어넘어,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성에 조금이라도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내부적으로도 화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형제와 형제

가 등을 돌리고, 부모와 자식들 간에 폭력이 오갑니다. 정치인들도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세대차, 지역차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통일에 앞서 신앙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물질문명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대로 통일이 되어서는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준, 교육수준도 높여야 하고, 언어의 통일도 이루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면, 통일 이후에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직한 삶,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백두대간 햇불 기도회는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올림픽 유치도 좋고 강원도의 발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왜 올림픽을 유치해야 하고 강원도가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보다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백두대간 햇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강원도의 발전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쓰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오서 감독 이력

- <학력> 감리교 신학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미국 클레어몬트 M.Div 및 D.Min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 초대회장 역임
현 감리교 신학대학교 객원 교수
현 교역자 수급 및 목사고시 위원장
현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감독
현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소개합니다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춘천기독교직장선교회는 1992년 11월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직장인 정오예배를 동부장로교회(소예배실)에서 드리고 있다. 또한 “오늘도 말씀으로...”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통해 이메일 선교사역(YIKIM@HALLYM.AC.KR)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찬양대회와 열린찬양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고,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춘천과 국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통일을 위한 기도 및 후원운동, 불우이웃돕기, 선교회지 발간, 직장선교 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운동, 직장선교회 가족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춘천직장선교회는 46개의 지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지회별로 매주 예배모임을 갖는 지회와 매월 갖는 지회가 있고, 지회별로 사회시설을 돌보며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며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음악과 경인의 밤을 주체”하는 지회도 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인인 직장선교회가 직장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도한다.

(글: 편집부/자료제공: 직장선교 연합회)

[임원명단]

- 연합 회장 김철수 장로(춘천교도소)
- 수석부회장 최형진 장로(강원도청)
- 부 회 장 김용일 장로(한림대)
- 김동환 안수집사(춘천시청)
- 조경희 장로(춘천중앙교)
- 총 무 이호익 장로(강원시대부고)
- 부 총 무 김연래 권사(강원농협지역본부)
- 시 기 김용인 안수집사(춘천교도소)
- 회 계 전종덕 권사(김광영)
- 감 사 류승근 장로(강원도청)
- 정철교 집사(조흥은행)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양로원 (11월준공)

휴식공간

- 주간 집회
매주: 월~토요일 까지
시간: 새벽 6시, 낮 11시, 저녁 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 8시
- 금요 열아집회 - 금요일 밤 10시부터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 합니다.
- 치매중증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말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 춘천시 신평동 의암리 231-2 (의암열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 (033) 262-7923 ~ 4, 262-5694, 019-224-8796

춘천

임마누엘 기도원

임마누엘 기도원 개원 3주년

감사에배 및 교회 설립에배

일시: 2004년 9월 18일 (토) / 오전 10시 30분

주소: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207-1

(대통산 쉼터 뒤)

전화: (033) 261-2377

담당목사 노영길



※ 기도원 은사집회가 매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한민족은 21세기 태평양 시대 기독교 중심국가

광복 59주년을 맞이 하며...

급변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지 59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에서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해묵은 과거사를 규명하고, 역사를 정리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일과 애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민족의 미래를 놓고 볼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사 규명문제와 더불어 한반도에는 급박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북한 핵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은 2004년 8월 30일(현지시간) 전당대회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을 유지하고 어떠한 국제기구도 미국의 지도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채택했다. 공화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이번 전당대회 첫날 채택된 강경정책에서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되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전쟁의 어두운 먹구름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문제는 매우 복잡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이중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풀어나가야 할 민족문제이면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문제이므로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4국과의 관계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탈냉전 시대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동서 대결구조가 와해된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있어서 일반적으로 평화와 탈냉전을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에는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300만명의 노동당원과 130만 북한 인민군대가 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광복 59주년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민족의 비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분단 59년의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발적인 의지로 공산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현재 분단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북한 인구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사람들도 우리의 동포요, 형제요, 자매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다.



늑아 할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와 북한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시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적화야욕을 주시해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300만 가운데 90%가량 되는 북한 동포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역사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지고 있다. 현재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확실한 것은 역사의 중심이 태평양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일본, 한국의 세 나라가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태평양시대의 주도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매우 중요

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져 있다. 우리 한반도가 강대국의 사이에서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반도는 태평양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태평양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였고,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도록 해주었다. 일본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등과 같은 민족적 시련을 이겨내어, 경제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하였고,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간 시련과 고난의 역사가 이 민족에 복음의 생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 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태평양시대의 동아시아 중심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여 사회를 변화시켜서 기독교 정신으로 총만혜된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교회와 그 민족과 운명을 같이한다. 민족이 시련을 받으면 교회도 시련을 받게 되고, 민족이 강성하게 되면 교회도 영적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은 매우 막중한 것으로서,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풀어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다. 시련과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단호하게 걸어 들어가셨다. 이러한 신앙적 자세는 민족이 직면한 도전의 과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태평양시대 동북아 기독교 중심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이다. 21세기 한국교회에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이 새로운 개혁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새로워진 모습을 세계사 속에서 보아줄 수 있어야 한다. 광복 59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깨닫고, 바라보아야 할 영적 사명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편집부)

종합피아노



- ※ 피아노조율 • 수리
- ※ 중고피아노구매
- ※ 중고피아노 판매
- ※ 악기취급

대표 김 인 숙

춘천시 효자1동 677-16번지
전 화. (033)251-3745
휴대폰. 018-254-3745

▶ 봉의도등학교 악사리 고개 중간 위치

나무라지 마십시오
학생잡동이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배웁니다
수학을 정복하는 좋은 방법
필즈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 필즈가
책임지겠습니다



Fieldz
필즈수학스쿨

교 육 상 담

251-7536

[후평중학교 부안초등학교 주공2단지 앞]

“탄자니아를 가슴에 품은 제일감리교회 에드 1기 선교팀”

“제일감리교회 청년들로 하여금 세계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사가 43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묶으시어, 우리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7월29일부터 8월15일까지 탄자니아김용주, 최경숙 선교사의 Dar es salam의 KIGAMBONI와 KIBADA 중심으로 단기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일감리교회 청년들의 고백이다. 직장인 청년들에게는 짧지 않은 기간이며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하기 때문인지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6명의 정예의 훈련된 군사들이 이번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돌아왔다.

본인이 이곳을 방문한 때는 단기선교를 떠나기 한 달여 전이었다. 선교특강을 하기 위해 제일감리교회 교육관을 찾았을 때의 그 열기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열명 남짓의 청년들이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고, 저녁 9시30분이 넘어서야 선교특강을 시작할 수 있었다. 11시30분경 선교특강이 마쳐지자 바로 이어서 체력훈련이 시작되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정예의 군사로 훈련되는 모습이었다. 그 외에도 제일감리교회 에드1기팀은 각 팀별사역준비, 현지 지역연구, 심리학 특강, 공동체 훈련, 스와힐리어, 독서세미나, 묵상, 성경통독, 양호진 방문, 기도회 등 파송 두 달전부터 이런 훈련들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에드1기팀은 전두지휘했던 이영란 자매는 그간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말한다. “저희 선교팀은 자매4명, 형제2명으로 보통 10명 이상의 선교팀에 비해 인원이 다소 적었을 뿐 아니라 훈련기간도 두 달이 채 못되는 짧은 기간이었기에 사역준비가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지만 팀원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최선을 다해 훈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길 그토록 고대하셨던 아름다운 땅 탄자니아를 밟으며 저희의 감사의 고백들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에드1기팀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벌써 이들보다 앞서 현지의 한국대학생 4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 청년들도 불이셔서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에 사단의 방해가 없을 리가 없었다. 사역 첫날 팀원 모두는 영적 놀임을 경험하며, 도착 7일만에 3명이 말라리아에 걸려 구토와 고열에 시달려야 했고, 식사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성령님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영적으로 든든히 하시고 담대하게 힘을 주셨다. 약함이 오히려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육의 약함으로 성령님을 알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일감리교회 에드1기팀의 사역을 간략하게 보고한다.

▶ 오 후

1) 어린이사역팀

교사인원: 에드팀4명 + 현지 전도사1명 + 주일학교 교사3명 = 8명

사역현황: 주일학교 중심 여름성경학교 사역

사역대상: 마을인근 어린이대상 보통 200명 - 300명 정도

사역방법: 현지가 찬양 및 레크리에이션-시청각 자료 이용한 메시지-게임-찬양-기도

2) 의료사역팀

의료팀 인원: 에드팀 2명(간호학 전공자) + 현지 약사선교사1명 + 현지 의사, 간호사2명 = 5명

사역대상: 사역지 인근 주민전체 하루 통상 200-300명 정도

사역방법: 의사, 약사의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품 포장 및 배부, 환부치료 중심

3) 축조전도팀

전도팀인원: 에드팀 4명(마을마다 어린이사역 마지막 날은 어린이 사역이 아닌 축조전도를 실시함) + 현지 전도팀 15명 = 19명

전도방법: 인근 주민들에게 국내서 준비해간 전도팸플릿을 통해 스와힐리어 사영리를 전하고, 영접기도를 함. 어린이 사역시에도 마지막 날엔 전도팸플릿으로 사영리를 전하고 한 명씩 전도팸플릿을 나눠줬다.

▶ 오 후

1) 부흥집회

사역기간내 주중 매일 부흥집회를 했다.

강사: 현지 부흥강사 3명

참여대상인원: 사역지 인근 마을 주민 전체 400-500명
집회진행방법: 현지 찬양팀 → 에드팀 → 현지 중창팀 → 에드팀 → 부흥집회 → 결단의 시간

에드팀 사역방법: 태권도 사영리, 워십 3개, 드라마 1개를 준비해 가서 매시간 사역함.

2) 예수영화 상영

마을주민 대상으로 부흥집회 후 야외에서 예수영화를 상영함.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러한 사역을 진행하며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한다. “부족한 저희들은 어린이사역을 통해 무슬림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접함을 경험하였고, 부흥집회 때마다 현지인들과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43:2)

유의 은사, 임신 등) 바라보며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일감리교회 에드1기 선교팀은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보이시고 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바로 열방을 향한 갈급한

목마름이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급.” 탄식하던 하나님의 부딪스런 음성이 비로소 무거운 짐이 아닌 거룩한 초청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갈급함이 나의 갈급함으로 가슴 깊이 깊이 저며오게 된 것이다.

본인은 제일감리교회 에드1기 선교팀을 취재하면서 한국교회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라기는 에드1기 선교팀이 모델이 되어 천천히 수많은 청년들이 열방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그치는 선교여행이 아니라 사역을 잘 준비하여 현지 사역자를 돕는 그런 단기 사역팀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기대해본다.

“사람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지친 갇힌 자들은 내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에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자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자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취재 최영조 목사)

천이노기획 since 1978

대표 전 천 일 안수집사 (순복음순천교회)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동성교회 앞 우영유통 뒤)
Tel. 033) 255-5722
Fax. 033) 256-5722

• 디자이너 : 박은진, 전남희
• 기술담당 : 박승기, 김효운

(디자인(구인))

신앙을 가진 동역자를 찾습니다. 작은투자로 뜻있는 분 상담바랍니다.

정직, 성실로 앞서가는 기업
그린주유소

대표 : 이 상 우 집사 (순영제일교회)

퇴계동 아이마트 앞
033) 262-6500

춘천 영적지도자 100인에게 듣는다.

춘천성시화선교대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황리에 이루어진 선교대회가 올해 제2회를 맞이하여 성시화의 날개를 달면서 새로운 기획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향후 선교대회의 비전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독교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 그럼 우선 지난해 춘천선교대회를 섬기셨던 박인관 목사님께서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선교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작년에 선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춘천교회포럼(ccf, 이하 ccf)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강대교수신우회 역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춘천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연합 집회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게 되면 주관단체가 있어야 하니까 결국, ccf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2.3개월 기도하면서 기독교연합회에 의뢰를 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때 제가 수석부회장이었고, 박인관 목사님이 서기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회장님이셨던 임신영 목사님께서 가을 부흥성회를 ccf가 주관해서 선교대회로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었지요. 저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주회는 기독교연합회로, 주관은 ccf가 되어서 진행한 것입니다. 선교대회가 끝난 후에, 일부에서는 다소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춘천이 선교의 눈을 뜨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확신이 들면서 춘천선교대회는 옳으로 더욱 크게 활성화시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10월 첫째주를 성시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그 주간 중에 선교대회를 개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는 미술인대회 및 체육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저녁에는 선교대회를 개최하면 좋을 듯합니다.

박: 처음에 ccf가 맡았을 때 불안했어요. 비록 기독교연합회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선교단체 부스 설치 등 경비가 천여만원정도 예상되었지요. 거기다가 세미나도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컸던, 이등회 목사님(전주 안대목교회) 말씀도 좋았고, 선교단체들이 설치한 부스는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올해 선교대회도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의 강력한 의지가운데 잘 정착이 되면 춘천에 놀라운 선교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오: 아쉬운 점은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 한 가정이라도 파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춘천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규모가 작은 소도시에도 선교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선교의 역사가 퍼져 나가갈 것입니다.



조: 지금까지 춘천선교대회가 열어나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리를 하면 여러 단체들이 잘 연합되어서 진행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교대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번째로는 효과적인 면이고, 두번째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주로 1년에 한 번하는 부흥성회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성시화는 부흥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속있는 성시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구대의연합연합회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대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요즘 시골교회들을 포함하여 전국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의 불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CCC(대학생 선교회)가 횡성리조트에서 15,000명이 모였습니다. 천안대학교에서 있었던 선교한국 2004 대회도 10,000명 정도 모였는데, 회비가 10만원 이상인데도, 대회 보름 전에 거의 다 마감이 되었답니다. 젊은이들의 선교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에 대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열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젊은 청년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지역 교회로 돌아오는데, 개 교회와 지역에서 선교에 대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그들은 갈매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비전이 선교리민 이것을 지역교회가 수용함으로써 이를 극대화하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흥집회보다는 선교대회를 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저는 지난번 대회의 값진 의미 중에 하나가, 첫번째 대회로서 균형 잡힌 감사를 모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개념에서 사도행전18절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지상명령을 4천원 선교로 잘 실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사는 지역을 예루살렘 선교지로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나가는 선교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 사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선교의 열정이 뜨겁다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선교의 열정이 언제 뜨거웠는가? 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교회가 아주 건강할 때도 선교의 일꾼들이 배출되지만, 반대로 미국의 경우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썩어갈 때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은 뜨거운데, 안으로 썩어터진 경우가 현대 미국교회가 보이는 양상입니다. 미국교회가 9.11테러 이전에 이미 썩어 있었는데도 젊은이들은 여전히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해외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성시화운동을 통해 예루살렘교회, 즉 춘천의 교회가 건강하고, 춘천의 정치, 문화,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균형 있으면서도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년에 한 번하는 부흥성회를 선교대회로 바꾸며 준비했었다면, 이제는 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는 두 가지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시화이고, 또 하나는 세계선교입니다. 성시화는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대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다시 말하면 지역 선교가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춘천선교대회는 회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문화축제까지 겸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저도 이러한 관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교대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선교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비전이 없이, 지역복음화만 외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지역복음화는 상관이 없는 해외선교만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선교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몇 번이나 선교의 개념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해외로 나가고 안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마인

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볼 기회가 없었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춘천선교대회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이름 자체를 성시화선교대회로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균형잡힌 올바른 선교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저는 춘천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춘천에서 30년 전에 시작했던 성시화대회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올해 포항에서 성시화대회가 열렸는데, 세계화로 전환되면서 전국 22개 도시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운동이 민족복음화 운동으로 나아가 이젠 전 민족복음화 운동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춘천이 힘을 결집하여 성시화운동을 구체화시키고, 이 운동을 통한 세계선교를 일으킨다면 또 다른 면의 비전을 전국과 세계에 새롭게 제시하면서 건강한 성시화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 사실 제1회 선교대회는 이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대회진행에 있어서는 성시화 차원의 프로그램은 배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시, 춘천에는 해외선교회 지부가 한개도 없었을 정도로 성시화에 비해 해외선교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약했기 때문에 보안을 필요했습니다.

본 좌담회는 작년대회를 평가하고, 올해 한 단계 구체화된 춘천성시화선교대회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자리를 하여 나눈 대담입니다.



피: 저도 박인관 목사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1회 대회는 해외선교의 마인드 조성으로 일단 긍정적이고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1회 선교대회를 보면서 교회의 참여 면에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작년 선교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참여하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동원되었는가? 하는 현실적인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집은 금년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숙지하고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 작년의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선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년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불과 2-3개월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저는 이번에 춘천의 기독교인의 결집된 힘을 가지적으로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가끔 보면, 춘천지역 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교회가 지역사회와 춘천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시를 당하는 면이 있는 듯합니다. 대조적으로 현재 불교는 춘천시 관광지도에 청평사와 심운사가 들어갈 정도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는 교회의 존재와 결집된 힘을 통해 선한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춘천의 전교회회가 모여서 피켓을 들고 시가행진을 했었던 것처럼 선교대회기간에 중도선착장이나 공직전 수변공원 등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대규모 바자회를 하여 그 기금을 시나 복지기관에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그런 것은 문화축제를 바로 하면 이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축제를 전후해서 전도대회도 하고, 기도대회도 하고, 모든 교회가 동참하는 바자회도 하고요...

지: 아, 그러면 지금부터 평신도 축구팀들이 운동을 하여 예산을 거쳐 선교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웃음)

박: 춘천성시화와 관련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열매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 성시화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성시화 선교대회를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온라인 그룹형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야, 문화연구팀, 중보기도팀, 어머니/아버지학교, 가정전도팀 등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그룹을 구성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연구하고, 그 방면으로 사회를 변화시켜나가기에 하는 실제적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성시화가 상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 저는 성시화운동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요즘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국가를, 한때는 사람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현재,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등의 도시 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도시 전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한 서적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도시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로 시작되는 게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합된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월 선교대회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좋은 아이디어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내년 즈음에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단계로 일치와 연합으로 정하고, 선교대회에 춘천의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홍보하는 것이 시기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같은 도시의 부흥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마약, 술, 범죄 등 세상의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일어난 특별한 역사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 춘천은 이미 복음화가 된 지 오래되었고 교회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춘천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내적이며 가시적, 영적 결실이 이미 세워져 있는 질서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나아가야 전 교회의 참여와 성도의 동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창: 목사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간 제 생각에는 2개월 남은 시간동안에, 바자회 등의 가시적 행사보다는 교회에 충분히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력을 쏟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목회자를 중심으로 전교회가 참여하여, 선교대회를 이끌어 가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기독교연합회가 8년이 되었고, 성시화운동본부도 창립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대 총무를 하면서 연합문제에 있어서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되더군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연합과 일치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행사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론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과 일치하는 몇몇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효과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 그런데 그 어려운 연합에 새 가능성을 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목회자 축구 모임에는 30여명 이상이 모입니다. 박 목사님의 지론에 대한 가능성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 저는 그런 면에서 관심있는 분야를 네트워크화 할 때, 자연스럽게 연합과 일치가 되면서 선교대회에도 활발하게 인원동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지금까지 춘천성시화선교대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좌담회에서 나누어진 유익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과적으로 실현되어, 춘천지역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며, 춘천이 거룩한 도시가 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가올 10월, 춘천성시화선교대회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력,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04년 8월 8일 저녁9시 나눔교회
좌담: 오승룡(기독교연합회 회장, 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지용천(기독교연합회 총무) 피종호(기독교연합회 선교단체협의회) 박인관(기독교연합회 교단협의회) 최상도(성시화연구소 소장) 조영춘(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재호(성시화운동본부 사무차장) 오창호(기독교연합회 간사) 김미경(성시화운동본부 간사) 이원기(성시화운동본부 미디어선교부)

진행: 조영춘
자료정리 및 사진: 오창호, 김미경
동영상 촬영: 이원기

1.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과 성시화 운동

교회개혁과 성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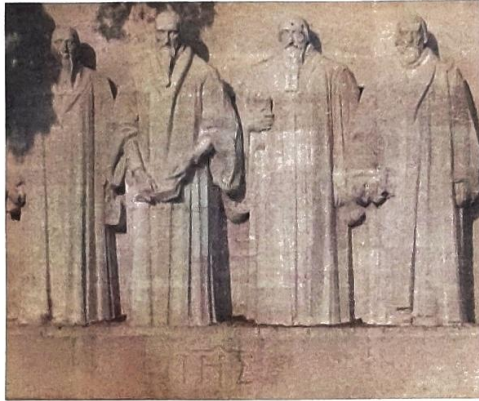
칼빈에게 있어서 제네바시 개혁의 첫 출발점이 교회개혁운동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성시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거룩한 도시를 향한 우리의 첫 출발점도 칼빈이 그러했듯이 성경적 교회로의 회복운동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춘천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21세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성경적인 교회로의 회복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첫째, **축복의 균형잡힌 시각을 상실한 변영의 복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죄 용서, 건강, 사업의 성공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하는 것도 올바른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변영만이 복음을 설명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예수께서는 신실한 제자가 되면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처절한 싸움을 자초한 사람들의 위대한 생애를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차마 이 세상에 살 수 없었다. 중국의 교회는 문화대혁명이라는 지독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에 고난을 당했는가? 오늘날 우리는 변영이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영만을 추구하는 복음은 거룩한 영적전투를 위한 삶의 현장에 직면하게 될 때 생존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낳을 수 있다.

둘째, 다른 복음 즉 **휴머니즘의 복음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복음이란 죄, 심판, 구원(영생) 그리고 용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다. 만약 복음에 죄, 심판, 구원(영생)과 용서에 대한 본질이 빠져 버리고, 이 땅에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칼빈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과 교회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투쟁하는 생애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갑옷을 입으라!

교회를 향한 칼빈의 투쟁으로 점철된 생애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우리의 도시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리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전투에의 부르심에 교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영적전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



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엄매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다. 어느 시대할 것 없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프란시스 페레는 "이 시대에는 결코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도전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이다. 이를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는 성경은 에베소서이다. 에베소서 6:10-18절 "종말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주 이 구절들이 개인에게 적용되어 설명되지만 이 글은 개인에게 쓴 글이 아니고 그의 교회에 편지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함께 마귀의 계를 대항해야 한다. 또한 함께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하며 함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적은 누구인가?

우리가 위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 대상에 관한 것이다.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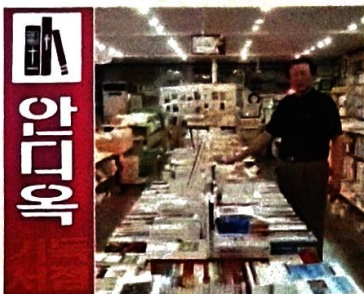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위해서 영적 갑옷이 아닌 물리적 무장을 하고 온갖 종류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교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에게조차도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건대,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영 곧 마귀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인격적인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중세적 미신의 유물이며 신앙 성장에도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가지는 것은 세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초대 교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범하는 유사한 두 가지 위험한 오류가 있는데, 첫째는 사단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 마귀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두 가지 오류는 교회가 행해야 할 영적 전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경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계 12:9, 12-13, 17)

성시화의 강력한 무기- 기도와 찬양

교회가 싸워야 할 적이 악한 영, 사단이고, 마귀이다. 타종교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불신자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의 지역에서 내 쫓는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의 적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내부에 존재한다.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할 이루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바울은 영적갑옷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겐을 들어 말고의 귀를 내리친 베드로를 향해 "겐을 집에 꽂으라. 겐을 가지는 자는 다 겐으로 망하느니라." (마 26:52)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한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기도와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빨갱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시험에 넘어진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시화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전투를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글: 정재호 목사]

춘천안디옥서적센터



대표: 홍광유 장로

Tel: 033-255-9379

Fax: 033-253-5550

H·P: 018-212-9379

춘천시 효자 3동 607-2 6/1
(효자파출소 맞은편)

에덴실과

생일, 결혼, 큰잔, 요도 대표 김정환 안수집사
문병, 개업식 각종 기념일

영사에 필요한 과일

문안카드와 함께
배달해 드립니다.

전화주문

(033)242-5252

256-5252

후평동 현대 2차APT 앞

문화읽기

영화에도 상상력이 있는가?

영화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낯선 이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 가는데 영화만큼 좋은 것은 없다. 굳이 영화평론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마디쯤은 던질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적으로 분석해 들어간다면 영화에도 나름의 문법이 있고, 표현 방식과 미학이 있어서 쉽고 편하게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자와는 달리 접근하기가 쉽고 어떤 경험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공통의 본모로 삼기에 대단히 적합하다.

영화에 대한 열려는 영화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1920·30년대를 지나면서 문학인들은 영화가 과연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해왔다. 펜을 들어 영화를 비평하는 작업 자체는 문학적이기 때문에 영화는 문학의 하류 장르로 취급되어 왔다.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문학으로부터 천대받은 것은 다른 아닌 상상력이라는 것 때문이다. 행간을 읽으려는 격언처럼 문학은 글 자체보다 그 이면에 있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는다. 하지만 영화는 모든 묘사를 도식화하고 단순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몇 안되는 영화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지나치게 간결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상상력을 통해 얻는 거룩한 경외심을 격감시킨다는 우려가 늘 따라다닌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정형적인 우대인으로 한정시켜 그 외의 상상을 아예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다들 숨을 쉬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영화에도 나름의 상상력이 있다. 빠른 화면 전환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영화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관객의 상상력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헐리웃의 영화에 국한된다. 더욱 많은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려 한다. 물론 관객들은 그런 영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루하다고 불평을 한다. 마치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이들이 시원한 동치미나 된장국의 맛을 이상하다고 평하는 것과 유사하다. 상상력을 불어넣어주는 이들 영화에 일단 맛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아예 매니아로 변모하게 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사건은 스크린 안에 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크린 밖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스크린 안에서는 일어난 일들의 조그마한 조각을 보여줄 뿐이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줄곧 생각하며 자신의 기억들을 동원하여 영화를 재조립해나간다. 장면과 장면이 성큼성큼 건너뛰어도 빈곳을 상상력으로 메우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간다. 상상력이 없다면 결코 영화를 감상할 수 없다.

성급하게 문자언어의 시대는 가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상언어 시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을 살려내면서 영상만이 지닐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미할 수 있다면 영상언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좋은 도구가 약한 이들의 영역에 마냥 두어서는 안된다. 올곧은 이들의 손에 의해 거룩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를 방치해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정배 (온의 감리교회 목사/수필/영화평론)

한국 개회기에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린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W. J. Madenzie)입니다. 1894년, 맥켄지는 황해도 솔네에서 조선선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는 조선 친구들을 두고 혼자 호강할 수 없다고 해서 화려한 집을 포기하고 오두막집에서 살았고, 좋은 서양 음식도 포기하고 조선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우정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과 필요에는 둔감하고 타인의 감정과 필요에는 예민한 것! 그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한번은 서울에 살던 언더우드의 부인인 릴리아스 홀튼(L. Horton)여사가 성탄절에 빵, 케이크, 과일 캔, 차, 우유, 설탕 등을 맥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는 그 음식을 한번 입에 대면 다시는 조선 밥을 먹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며 점차 허약해져 갔습니다.

우정이 무엇입니까? 무수한 일제 속에는 신체가 없고 몇 개의 열매 속에 신체가 담긴 것! 그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조선 겨레와 함께 가난에 시달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서양인의 우정으로 동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었습니다. 맥켄지의 인정이 넘치는 삶과 비록 마른 그의 얼굴에 나타난 따뜻한 미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진짜 설교였습니다.

우정이 무엇입니까? 인정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인정이 많기에 인정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우정

우정에 관한 6가지 정의



입니다.

1895년은 동학군이 "조선은 조선인이!"라는 구호로 큰 힘을 발휘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동학군이 맥켄지가 사는 마을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맥켄지는 자신의 총을 꺼내 부식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동학군은 "만일 그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를 공격하는 것은 무의의하고 나쁜 일이다."고 판단한 후 퇴각했습니다.

우정이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은 믿음으로 강하게 믿고, 강한 사람은 사랑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우정이 선율처럼 흐르는 삶을 살던 맥켄지는 1895년 여름, 열병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사랑했던 친구의 나라 조선 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왜 힘든 조선 땅에 일부터 와서 고생만 하다 죽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조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정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떠나갈 때에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맥켄지는 죽었지만 그의 아름다운 삶은 한국인의 마음에 영원히 이채로운 꽃처럼 기억될 것입니다.

우정이 무엇입니까? 고봉과 실천과 희생의 터전 위에 만개하는 꽃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춘천시민에게 -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한다.

[글: 편집부]



사진의 명가

귀빈스튜디오

(주공 1단지 시장 옆)

▶백악·돌·귀당사진촬영

대표 신 병 철
(순복음춘천교회집사)

▶교회음식원 기념사진촬영

전 화. (033) 253-8608 / 휴대폰. 011-377-2599

샤론 화장품(Sharon)

샤론은 인공적인 색소나 방부제나 화학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을 다루고 있으며 식품과 민감성 화장품만을 취급하는 회사 인터코퍼레이션입니다.

- 건성용 : 수시로 D (남녀 공용)
- 지성용 : 수시로 O (남녀 공용)
- 스킨 + 로션 + 에센스 + 영양크림 + 아이크림의 기능을 하나로 결합 기본 화장품수 보급형 수시로 D와 O는 25ml:20,000원
- 여드름용 : 세아누(남녀 공용)
- 아토피용 : 아토피케어(남녀 공용) 50ml:50,000원
- 모발용 : 나이라 -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와 모근형성 제품
- 모발용 - 비듬 가려움증 및 두피트러블 케어 제품 80ml:100,000원
- 그외 발의 각질, 무좀, 가려움, 껍질의 청결, 비염예방용 제품이 있다.
- <샤론의 우수성>
- ※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고 식품의 추출물만으로 만든 미용농축액
- ※ 피부보습작용을 형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 ※ 보습효과가 뛰어나서 건조할 때에 더욱 좋고 피부노화 방지 기능
- ※ 남녀 공용, 휴대와 사용이 간편

춘천지역판매담당 변춘자 권사(소양성결) ☎ 242-0191 휴대폰. 017-383-2455

포 / 토 / 에 / 세 / 이



따란 하늘에 새가 되어

햇살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머리로 파고드는 햇살의 뜨거운 열기에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때론 실망도 때론 좌절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협한 세상의 환경들을 극복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주님의 파스하고도 시원한 위로가
파란하늘에 새가 되어 다가온 구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진:글 김수영 전도사

구인·구직광고

"너의 장막 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이사야 54:2)

성시신문에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신뢰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업체와 준비된 구인자의 만남의 통로를 세워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착각기획

디자인너 구함
자격
- 크리스찬
- 일러스트/포토샵 가능자
문의
033) 255-5722

✦ 순천경찰서 경무실

행정간사구함
- 오전 10시 ~ 오후 4시
문의
033) 252-1717

책으로보는 세상

전능자의 그늘

글: 고재만 목사(평안성결교회)

엘리자베스 엘리엇. 윤종석 역. 북있는 사람. 2002.



짐 엘리엇은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나 1956년 1월8일(29세), 그 때까지만 해도 백인들을 포함한 많은 외부인을 보는 대로 살해했던 악명 높고 접근이 어려운 원시부족이었던 에

도르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다가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순교를 당한 선교사였다. 그의 선교의 업적은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의 사후에 20세기 선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능자의 그늘」은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과 나눈 서신과 대화, 짐의 일기 등을 바탕으로 짐의 삶을 순교의 자리까지를 기록한 것이다. 짐 엘리엇이 20세기 미국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 책이 그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지금에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귀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선교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에 있어서도 큰 도전을 준다. 김형익 선교사(IGP선교회 한국대표)는 '왜 짐 엘리엇인가?' 라는 글에서 "영성 결핍의 시대가 엘리엇을 필요로 한다. 말이 아니고 단순한 묵상도 아닌 삶으로 드러났고, 죽음을 통해 극명해진 그의 살아있는 영성이 삶의 면면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엘리엇의 삶은 우리에게 탁월한 영성을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역할 모델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서는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그의 신앙의 배경이 되는 집안의 뿌리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2부는 대학시절 신앙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다. 3부는 비전을 세워가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기이다. 방황하는 것 같지만 세심하게 역사하는

하나님과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짐을 볼 수 있다. 4부는 비전의 실현으로 선교를 위해 에와드로 출발하여 순교하기까지의 선교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짐 엘리엇의 선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하나하나 드러가는 순종의 삶'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익 선교사는 이 책을 통하여 짐 엘리엇에게 배우는 것 5가지를 제시했다.

1. 순종이다. 그의 순종의 삶은 행동 없는 감성의 시대에 충격적인 도전이다.
2. 하나님 일기를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그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3.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애정이다.
4.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귀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살았던 그의 가치관이다.
5. 그의 선교적 열정과 선교에 대한 단호하고도 분명한 태도이다.

공개구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를 주께서 주신다."(잠언 19:14)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의 건전한 교제와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자리가 되는 공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 256, 257-1260
010-3118-9355

행사안내

각 교회 및 단체에서 모든성도들이 함께 나눌 행사나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의 : 256, 257-1260
010-3118-9355



여성의류·결혼예복 전문
랑시벨라

대표: 전은풍 장로

중앙로 2가 37-3
(한국투자신탁길 건너)

☎ 033) 255-6969
011-369-1084

순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최순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골목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웃음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기독교 연합회 행사들

♡ 춘천장로연합회 순회헌신예배

8월8일(주일) 오후3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춘천장로연합회 순회헌신예배를 드렸다. 마칠규 장로의 사회와 임영일 장로의 기도, 그리고 '충성된 종의 길'이란 주제로 박상호 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 저소득층 학생 중식을 위한 지원금 전달



8월16일(월)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오승동 목사는 한장수 도교육감에게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금 46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지난 5월8일 사랑의 콘서트 등 기독교화행사를 통해 마련된 현금이다.

♡ '배두대간 햇빛 기도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미래의 땅 강원도 발전을 위한 '배두대간 햇빛 기도회'가 8월29일(주일) 오후 4시~6시 강릉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아름의 시> 찬양단과 팝페라 카스라트라도 정세훈의 찬양으로, 2부는 심기섭 강릉시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환영과 축사로, 3부에서는 예배의 시간으로 권오서 감독이 '하나되어 세계로'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오승동 목사의 강원도 발전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

♡ 제39차 열린문 귀납적성경연구

8월23일(월)~26일(목) 4일간 오전9시~오후5시까지 소양정교회에서 열린문성경연구원 주최와 춘천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베드로전도 집중세미나가 열렸다. 강사는 본원장이신 송계성 목사와 이명관 목사, 김정현 목사로 베드로전서의 관찰과 해석을 통해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 한국 번개건축 2004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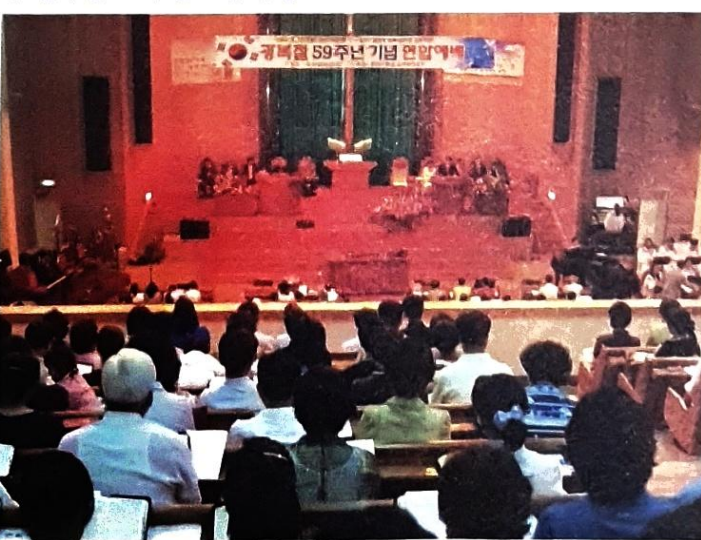


지난 8월2일(월)~7일(토)까지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162-1번지에 한국 캐비타트 '소망의 마을' 건축현장에는 민족사관고, 강원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한동대 등의 학생들과 라파즈한사시멘트, 방그레 등의 기업체인들 등 내국인 약200여명과 일본인30여명이 불볕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였다. 기간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집짓기를 마치고 문화탐방, 격려의 밤 등 춘천지회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였다. 특히 8월5일(목) 저녁7

시30분 춘천시립문화관에서 마련된 '자원봉사자를 위한 위인의 밤'에는 CBS 고길화 아나운서의 진행과 이하규 장로(한국캐비타트 춘천지회이사)의 기도, 정근모 장로(한국캐비타트 이사장)의 인사말, 배계섭 이사장의 감시말이 있었고, 특별히 탭댄트 임동진 장로의 격려사와 특별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장기자랑 시간에는 서울여대, 강원대, 한양대, 한국과 일본 싸이클링팀 등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틀 참가자 중 한국과 일본 싸이클링팀은 일본의 전통무용을 선보여 가장 많은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 광복절 59주년 기념 연합 예배



8월15일(주일) 저녁7시30분 석사감리교회에서 약1천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최현목 목사(교역자연합회 부회장)의 사회, 한주석 장로(장로회연합회장)의 기도, 그리고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김진호 목사(감리교감독회장)가 설교를 하였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춘천시 복음화와 교회부흥을 위해 특별기도 순서를 가졌으며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대남YMCA 자광합창단(춘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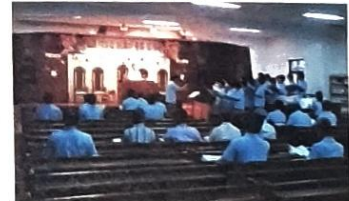


지난 8월11일~15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춘천 YMCA와 형제관계를 맺고 있는 대남의 대남YMCA의 자광합창단(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특별히 12일 춘천을 방문하여 오후 7시 춘천석사감리교회에서 공연을 하였다.

♡ 맹진녀 선교사 파송예배

8월15일(주일) 저녁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맹진녀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조영훈 목사(예감침례의 설교와 맹진녀 선교사의 사역 소개, 조종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맹진녀 선교사는 MK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영국에서 더 공부할 계획이다.

♡ 제20회기 장로연합회 수련회



8월17일(화)~18일(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는 주제로 1박2일 동안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장로연합회 수련회가 열렸다. 기간 중 중회와 세미나,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화물등 등을 관람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 춘천성시와 목요중보기도회



8월26일(목) 오후7시30분 예감침례교회에서 16명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모여서 춘천성시회를 위한 정기기도모임을 가졌다. 특별히 10월에 열리는 2004년 성시회를 위한 춘천선교대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압 복 유 학 원

유망직업 및 안내

1. 조기유망직업
 2. 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 이민비자 10개 대외/오스트레일리아 34개 대학, 대학부설 Language Center 및 어학원 안내
 3. 방학기간 영어연수안내
- English Plus Program 안내
- English Plus는 한 나라에서가 아닌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함께 특색있게 있는 영어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유학 컨설팅에서 다양한 나라의 학교와 교장만을 택하여 제공하여 드리는 코스로 일반인 및 연수의 2배의 성공요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일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www.jobbak.co.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Level 5, Friends Corner, 110 William Street, Perth, WAAustralia 6000. T 611-8 9324-20

연락처

서울지사: 서울시 성북구 관악동 남산빌딩 305호, T (02) 732-2208
 필리핀지사: 6362 Luna St. Pasig City, Makati City MM Philippines
 T 639 916-754-7513
 온앤오프: F 016-779-1275 선교는 아미션코퍼레이션 033) 243-0691

ANI (All Nations' Intercessors) 중보기도학교

- 개강: 2004년 9월 2일(목)
- 종강: 2004년 11월 25일(목)
-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0시 30분
- 장소: 베드로전교회 5층 추수홀
- 수강료: 20만원 (저녁식사 포함)
- 문의: 018-264-8917/018-203-8917
- ANI선교회 홈페이지: www.aniprayer.org
- ANI선교회 사무실: 대전시 유성구 권민동 336-53호
042-867-0891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대를 막아서
 서는 성을 쌓아놓게 할 사명을 내기 그 가운데서
 성을 쌓지 못함으로 (렘22:30)





“교회는 연합하여야만 삽니다.”

박인관 목사

교회란 개별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지역과 나라, 피부와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이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는 하나인 것이다. 개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로 머린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는 몸이다.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체들은 전혀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역할들이 모여 건강한 지체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네트워크 비밀이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유기적 공동체를 회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회들 간의 연합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이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우리의 건방진 과제이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힘들게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회가 연합하여 지체를 모아서 전략을 세우고 힘을 모으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아니 아쉬움을 넘어 절망에 가깝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춘천은 거룩한 도성을 부르짖었다. 1972년에

는 춘천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전국규모의 대집회도 열렸었다. 그러나 지금 춘천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혼란이 전국 1위이며, 대낮에도 번두리 여관의 빈방이 없고, 대형슈퍼와 청춘촌이 시내 한 복판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으며, 봉의산 밑의 많은 점집들과 우상숭배는 어떠한가? 전국에서 제1호로 성시화를 부르짖었는데 어인일인가?

춘천 성시화는 일 년에 몇 차례 대형집회로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몇몇 분들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수 십년 이어졌지만 갈 길은 묘연하다. 왜 그런가?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연합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춘천지역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영적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교회들이 연합(네트워크)하여 거대한 영적 그룹을 찾아야 한다. 대형슈퍼와 음란과 복술 등 영적전쟁으로 먼저 도시를 둘러싸고 역사하는 영들을 물리치는 것도 연합할 때 가능하다. 연합은 도시 전체에 거룩한 비람을 불게 하는 힘이다.

뿐만 아니라 성시화는 인간의 삶의 바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춘천시민의 삶의 한 복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시장, 시청, 문화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평신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빛, 소금, 누룩을 감당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춘천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관심과 재능이 있는 분야별로 모여야 한다. 정치, 경제, 문

화,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분야별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 가지, 한 가지 차분하게 사역을 시작하면 천 분야가 동시에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시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단위로 만나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찾아 진행할 때 어찌 춘천에 서광이 비치지 않겠는가? 발바닥부터 변화, 이것이 진정한 누룩의 역할 아니겠는가? 이러한 다양한 삶의 한 복판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변화가 아니면 진정한 성시화, 복음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무기력한 기독교, 지탄받는 기독교, 개 교회주의에 빠져있는 기독교, 숫자적으로 부흥이 감되고 있는 기독교가 살아나는 길은 넘치는 힘을 가진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다.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모임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역자들여! 춘천에서 삶을 살고 있는 평신도들이여!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하여 힘을 모읍시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성시화운동본부가 이 일을 위해 총대를 메고 앞장서 갈 것 없이, 개인적으로 바쁜 것을 뒤엎어 모읍시다. 힘을 합칩시다.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개 교회가 동시에 사는 길입니다. 갈 길이 멀지만 기쁨으로 참여해 봅시다.

알려드려요

◆ 예수사랑운동

'rise up! 찬양집회'

일시: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9월 25일 저녁 6시 30분
장소: 춘천동부장로교회 소예배실
문의: 244-5400 / 019-538-3235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사랑방 운영'

일시: 8월 30일(월) ~ 11월 30일(화) 3개월간
장소: CCC회관
문의: 254-5776 / 011-216-3621

◆ 예수전도단

독수리 예수 재자 훈련학교(BEDTS)

일시: 2004년 9월 3일 ~ 2005년 2월 12일
시간: 금요일 저녁 7시~10시 토요일 오후 3시~9시
대상: 만18세 이상의 그리스도인, 직장인, 주부, 일반인
문의: 252-1128 / 011-9490-6612

◆ JDM

1) '춘천지역 대학 개강예배'

일시: 9월 2일(목) 저녁 7:30, 춘천 JDM회관

2) 'WDTI 건축모금을 위한 1일 창립'

일시: 9월 25일(토) 오전 10~저녁 9시, 카페 크리스찬

3) 'JDM 27주년 창립 감사예배'

일시: 10월 3일(주일) 오전 10시, WDTI

문의: 252-3192 / 011-9058-3192

◆ IVF

1) 후반기 재자학교 시작

일시: 2004년 9월 13일부터 10주간

내용: 제자도 및 말씀과 삶에 대한 훈련

대상: 캠퍼스 2학년 대상

장소: 아시아선교회

2) AMP(Asia Mission Project) 단기비전훈련 운영

일시: 2004년 9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장소: 아시아선교회

3) 캠퍼스 정기모임 안내

강원대: 매주 화 오후 6:30 (한재남 간사 011-367-9120)

한림대: 매주 화, 목 오후 6:30 (이용훈 간사 016-444-7406)

교육대: 매주 화 오후 6:30 (사공문 간사 011-9244-5206)

성심기능대: 매주 화, 목 오후 6:30

(석혜원 간사 011-367-0692)

◆ 어린이 전도협회

1) 2004년 하반기 새소식반(Good news club) 교사 7강습회

일시: 9월 7일(화) ~ 11월 30일(화)

강습회 시간: 낮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시

밤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베드로성령회와 5층 추수홀

강습회비: 2만원 (12회분) 핸드북, 특강교재 제공

(전도사각교재 별도구입)

강의내용: 시가공과/선교교육/찬양과 음용/요절암송/복습게임/교사를 위한 특강

2) 2004년 하반기 학교알 전도

교회학교 선생님과 함께 전도한 후 교회로 인도하는 프로그램

일시: 2004년 9월 9일~11월 25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교사전도훈련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전도도구-값없는책)

장소: 9월 9일 부안초등/16일 후평초등/23일

동부초등/30일 남부초등

문의: 033-253-1443

◆ 베드로성령회

MPS(선교사개관학교)

일시: 9월 11일~11월 27일(12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7시

장소: 베드로성령회와 5층 추수홀

문의: 253-3399/019-9903-1148

◆ ANI (All Nations' Intercessors) 통보기도학교

일시: 2004년 9월 25일(목)~11월 25일(목)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0시 30분

장소: 베드로성령회와 5층 추수홀

수강료 20만원(저녁식사 포함)

문의: 018-264-8917/018-203-8917

◆ 인도비바르 선교여행(ccf주최)

일시: 10월 11일(월)~10월 22일(금)

목적: 인도 비바르 가나인 농군학교 설립 등

◆ 제 2회 국가조찬기도회

일시: 9월 7일(화) 오전 7시

장소: 신성감리교회

주최: 사단법인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성시화 후원자 명단>

후원회계: 농협 203-02-280238 조남진
조흥 716-01-001389 조남진
국민 301-01-0585-522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성시화를 위한 구독연금에 동참합니다)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성결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동부교회	천원현교회
엔투어	김길수
김현철	김영명
민병업	박동환
성기운	신성균
신종철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이용규
이관호	이학규
유근창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033-242-5573

018-330-0433

1 OFFICE: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춘천시 서면 명림 1리 81-5

충청기독교장로연합회

직전회장: 황병호(제일장로)

회장: 한주석(광장감리)

부회장: 임운식(순복음춘천)

김기선(성광장로)

박한병(중앙성결)

이무식(석사감리)

마철규(제일장로)

임영일(춘천침례)

김태권(동부장로)

홍성운(창대감리)

서기: 성낙훈(우두감리)

회계: 서종신(광장감리)

회원부장: 맹영웅(광명장로)

선교부장: 김부희(광장감리)

감사: 장병섭(동부장로)

이영규(석사감리)

부총무: 김용현(순복음춘천)

부서기: 김영관(신성감리)

부회계: 김은묵(남춘천감리)